



좀 무서워요

진병수/성상담, 성교육전문가

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랑 좋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근데 요즘 자꾸 불안합니다. 생리가 저번 달에 하긴 했는데 그것도 불규칙하여 무척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랑 깨진 상태라 어떻게든 할 수가 없어요.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남 자친구와 헤어졌다고요. 사람과 사람의 헤어짐은 힘들고 아프죠. 좋아했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처럼 큰 아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어짐의 아픈 마음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앞서 있는 것 같군요.

그 불안한 이유가 임신여부 일 것입니다. 그것도 남자친구와 이미 헤어진 상태에서 혹시 임신이라도 되면 어쩌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서 일 것 같군요.

이런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임신여부의 확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만 직면한다는 것이 겁이 나고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있다고 할까요.

물론 하루하루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은 없어지지 않겠죠. 결과를 알 때까지 말입니다.

직면해 결과를 알아보는 것과 비록 하루 하루가 고통이라도 그냥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마음의 갈등, 부담을 줄여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스스로 알아보는 것보다 덜하다면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루하루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팔 저울에 올려놓아 기우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원치 않았던 결과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헤어졌다 하더라도 절반의 책임은 헤어진 남자에게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책임을 다할 걸 요구해야 하는데... 함께 풀어갈 것인지 혼자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필

요합니다.

무력하게 대처해 더 큰 부담을 짐을 지는 일은 없도록 말입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 아니겠죠. 다만 이번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님의 앞날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심사숙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공연히 자신을 방치해 더 큰 불행을 껴안지 않도록 말입니다. **PPFK**



500